부활 제5주일 강론(2019년 5월 19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멧돼지 두 마리가 샘터에서 만났습니다. 둘은 물을 먼저 먹겠다고 사납게 싸웁니다. 물 먼저 먹겠다고 죽자고 싸웁니다. 어차피 물은 없어지지 않을텐데도 그냥 죽자고 싸웁니다. 그냥 사이 좋게 같이 마시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머리 위에서는 독수리떼들이 몰려들어 날고 있습니다. 싸우다 먼저 죽는 놈을 먹어 치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자고 싸우다가 지쳐서 멧돼지 둘이 씩씩 거리면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자고 싸우다가 독수리 밥이 되느니, 그냥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물 먹고 가자!” 그렇게 멧돼지 두 마리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 돕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장독 속의 꽃게’라는 말 아십니까? 장독 속에 게를 넣어 놓으면, 절대 한마리도 못빠져 나온다고 합니다. 왜? 서로 밖으로 기어나오려고 발버둥치면서, 위에 있는 게를 밑에 있는 게가 끊임없이 물고 당겨 떨어뜨리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조그만 나라에서 늘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돕기 보다는 아주 치열하게 삽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이 이민 보따리를 싸서 공항에 내리면, 열 사람이 달려든다고 합니다. 벗겨 먹으려고… 중국 사람은 한 사람이 이민 오면, 열 사람이 모여들어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게 십시일반 도와준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친구에게 점심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부자와 친구가 되어서 부자되는 방법을 겸손하게 배우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자 친구나 부자 친척이 있으면 괜히 시기하고 못마땅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죠?

 다 함께 잘 살기 보다는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원수처럼 삽니다. 어느 거리에 빵집이 아주 잘되면, 그 길 건너에 똑같은 빵집을 또 차립니다. 식당이 아주 잘 되면, 그 옆에 똑같은 식당을 또 차려요. 같이 망하자는 거죠. 서로 도와서 잘 사는 것 보다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질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전범 국가가 되면서, 그 여파로 분단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전범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별 이유없이, 큰 잘못도 없이 분단을 하게 되었죠. 오히려 전쟁의 피해 국가였는데도, 분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이 분단이 되었지만, 독일은 벌써 통일을 이룬지 30년이 되어 가지만, 한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라진채로 동족끼리 적대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두 마리의 멧돼지 이야기는 서로 화합하고 일치해서 함께 살아갈 때,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단 한 문장, 아주 단순한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수동형 동사가 아니라, 능동형 동사입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 가장 천한 일만 도맡아 하는 가장 낮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스승님이 직접 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더 심하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희생됩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랑은 하느님께서 직접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운명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성당에 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맨날 헐뜯고 싸우고, 나쁜 소문 만들어서 서로 깎아 내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성당을 떠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는 엄청 큰데, 마음은 콩알만 하다고. 어디서 온갖 좋은 말, 좋은 지식은 다 들어서, 머리는 엄청 커졌지만, 마음 안에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콩알 만큼 작습니다.

 어떤 남자가 길거리를 가다가, 몸이 아주 불편해 보이는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여자 아이를 만납니다. “얘야, 네가 업고 있는 그 아이가 무겁지 않니?” 그 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내 동생이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귀찮은 겁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머리로 계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 갈때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로 하느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절대로 혼자 하느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손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던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느님 나라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제가 아무리 거룩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혼자서 하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 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절대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서로 봉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는 것인지. 서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하느님도 나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보살펴 주실 겁니다. 서로 친절하십시오. 비록 서로 의견이 맞지않고, 어렵고, 힘든 상대라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비슷한 처지의 인간들입니다. 서로 완전하지 못한 주제에 서로 평가하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오직 완전하신 하느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텅 빈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별 재미가 없고, 인생이 건조해 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나 사랑을 전하세요. 어느 누구든지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눈, 당신의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친절을 보이세요. 그리고 항상 서로 웃으세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옆 집 이웃들에게, 누구든지 상관말고, 서로 미소지으세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놀랍게 성장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